

김남훈 변호사

민법 핵심쟁점 심화정리특강

- 민법의 중요쟁점을 판례중심으로 정리하는 강의
-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는 강의

■ 강의일정 2020년 4/3(금) ~ 4/10(금), 오전 · 오후, 월~금 강의, 총 12 회(※1일 2회 연장)
오전 09:30 ~ 1:00 / 오후 2:30 ~ 6:00

■ 교 재 Essential 민법(저자, 전면개정판)

■ 강의특징 1.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

가. 변호사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 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 2020년 개정판인 “Essential 민법(전면개정판)”에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판례의 판시사항을 기재하였고, 테마별로 정리가 필요한 판례는 비교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다.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화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의 판례를 설명한 이후에, 이러한 판례가 선택형에서는 ~~방식으로, 사례형에서는 ~~방식으로, 기록형에서는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므로, 각 유형별로 ~~방식으로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의를 하여, 민법의 중요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강의특징 2.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형까지 대비

- 가.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요건사실의 체계에 맞추어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실체법적 주장들을 주장과 항변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 2020년 개정판인 “Essential 민법(전면개정판)”에는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모두 “요건사실론”의 체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의 판례와 실무서의 내용까지 전부 포함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요건사실론”교재를 추가하여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 민법의 중요 쟁점을 요건사실론의 체계에 맞추어 강의하여,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면 사례형에서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목차를 작성할 수 있고, 기록형에서 판례의 법리로 피고의 주장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진도별 강의내용

회 차	일 시	중요 강의내용
■ 제 1 회	4/3(금)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 / 의사표시
■ 제 2 회		대리 / 소멸시효
■ 제 3 회	4/6(월)	부동산물권변동(부동산등기법)
■ 제 4 회		점유권 / 취득시효 / 공동소유
■ 제 5 회	4/7(화)	명의신탁 / 지상권 / 전세권 / 유치권
■ 제 6 회		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제 7 회	4/8(수)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제 8 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다수당사자채권관계
■ 제 9 회	4/9(목)	변제 / 상계
■ 제 10 회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금과 해약금
■ 제 11 회	4/10(금)	매매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제 12 회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의 민사실체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민사실무법까지 강의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검임교수로 출강하는 실무가 강사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해야 하는 민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 동안 진행되는 12회의 집중강의를 통하여 수강생 분들이 민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